

태극전사 득점포 가동 잇따라

클린스만호 승선 경쟁

황인범·오현규, 휴일 유럽 리그 경기서 골맛

K리그 골잡이 조규성 엄원상도 나란히 득점포



하나원큐 K리그1 2023 전북현대와 수원삼성의 경기가 열린 5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현대 조규성 선수가 페널티킥을 차고 있다.

한국 축구를 이끌 위르겐 클린스만(59·독일) 감독이 8일 입국할 예정인 가운데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일제히 득점포를 가동했다. 이 같은 득점 경쟁이 이어지면서 선수 시절 공격수로 활약했던 클린스만 감독의 대표팀 선수 선발에도 영향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뛰는 미드필더 황인범은 5일(한국시간) 시즌 3호골을 터뜨렸다. 황인범은 이날 그리스 페이리아오스의 카라이스카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바디아코스와 2022~2023시즌 그리스 수페르리가 25라운드 홈 경기에서 골을 터뜨려 6-0 완승을 도왔다.

황인범은 콘스탄티노스 포르투니스가 올려준 크로스를 정확한 오른발 발리슛으로 연결해 골망을 갈랐다. 이는 황인범의 리그 2호골이자 시즌 3호골이다.

스코틀랜드 셀틱에서 뛰는 오현규도 골을 넣었다.

오현규는 이날 스코틀랜드 페이즐리의 세인트미켈 파크에서 열린 세인트미켈과의 2022~2023시즌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1부리그) 28라운드 원정경기 후반 36분 페널티킥 골을 성공시켰다.

후반 21분 교체 투입된 오현규는 문전에서 페널티킥을 유도했다. 직접 키커로 나선 오현규는 오른발 슛으로 골망을 갈랐다. 리그 데뷔골이자 스코틀랜드 무대 2호골이었다.

K리그에서도 골잡이들이 잇달아 골망을 흔들었다.

지난해 K리그 득점왕이자 카타르월드컵 스타인 전북현대 조규성은 지난 5일 수원삼성과 홈경기서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리그 1호골을 올렸다.

지난해 울산 현대 우승을 이끈 엄원상은 같은 날 강원FC와 원정경기서 골키퍼를 제치고 골을 넣어 개막 후 2연속 득점을 신고했다.

다만 그간 국가대표팀에서 주력 멤버로 활동해온 일부 선수들은 최근 득점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모양새다.

손흥민은 지난 5일 올버헨트 원더러스와 2022~2023시즌 EPL 26라운드 원정 경기에 선발로 나와 풀타임을 뛰었지만 토트넘의 0-1 패배를 막지 못했다. 회심의 왼발 슛이 골대에 맞는 등 불운도 있었다.

유럽무대 재진출을 위해 잠시 FC서울에서 칼을 갈고 있는 황의조도 K리그 복귀 이후 아직 득점하지 못하고 있다.

의욕 과잉도 있었다. 대표팀 승선을 노리는 수원FC 이승우는 지난 4일 포항스틸러스전 홈경기서 1-2로 뒤진 후반 36분 상대 페널티박스 안에서 슈팅을 위해 몸을 날리며 두 발을 뻗었는데 이 과정에서 포항 박승우의 발목을 가격했다. 주심은 영상을 확인한 뒤 심한 반칙을 적용해 이승우에게 다 이젝트 퇴장을 명했다. /뉴시스



6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신한은행 SOL 2022-2023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에서 정규리그 MVP, BEST5 포워드 부문, 우수수비선수상, 맑은기술 윤덕주상, 블록슛을 수상한 우리은행 김단비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단비, 여자농구 '최고의 별'

생애 첫 정규리그 MVP

여자프로농구 아산 우리은행의 올 시즌 정규리그 1위를 이끈 베테랑 김단비(33)가 생애 첫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의 영예를 안았다.

김단비는 6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신한은행 SOL 2022~2023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에서 MVP를 수상했다.

기자단 투표 총 110표 중 107표를 받았다. 데뷔 16년 만에 생애 첫 MVP 수상이다.

김단비는 정규리그 30경기에 모두 출전해 평균 31분55초를 뛰며 평균 17.17점 8.8리바운드 6.1어시스트 1.5스틸 1.3블록슛을 기록하며 팀을 정규리그 1위로 이끌었다.

주요 지표에서도 득점 2위, 리바운드 5위, 어시스트 2위, 스틸 1위, 블록슛 1위, 공헌도 1위 등 상위권에 자리했

다. 또 이번 시즌 트리플더블을 세 차례 기록했고, 라운드 MVP도 3회 수상했다.

김단비는 MVP를 비롯해 베스트5, 블록슛(1.30개), 맑은기술 윤덕주상(통계상), 우수수비선수상을 차지하며 5관왕에 올랐다.

WKBL 역대 7번째 정규리그 시상식 5관왕이다. 최다 다관왕은 박자수(KB국민은행)로 2020~2021시즌, 2021~2022시즌 7관왕에 오른 바 있다.

2007~2008시즌 신한은행에서 데뷔한 김단비는 데뷔 첫 시즌부터 2011~2012시즌까지 5회 연속 통합 우승을 경험했다. 당시엔 정주원, 정성민 최윤아 하은주 등 쟁쟁한 선배들을 돕는 조연이었다. 하지만 팀의 중심이 된 이후엔 우승과 인연이 없었다. 이번 시즌 정규리그 1위도 2011~2012시즌 이후 무려 11년 만이다. /뉴시스

장수군장애인탁구단 이근우 등 항저우 장애인 AG 국제 확정

장수군장애인체육회장(군수 최훈식)은 대한장애인탁구협회에서 주관하는 제4회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패러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장수군장애인탁구단 소속 이근우 선수가 1위로 태극마크를 달고 백영복 선수가 2위를 했다고 전했다.

제4회 항저우 아시안 패러게임은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중국 항저우에서 43개국 22개 종목의 616개의 경기가 개최되는 대회이다.

대회 출전을 위한 국가대표 선발전은 지난 달 국제탁구연맹(ITTF)의 경기규정과 대한장애인탁구협회 운영규정에 의해 진행됐으며, 개인단식(11점 5선 3선승제)로 경기가 진행됐다.

최종 선발은 선발전 결과의 등급별 순위를 기준으로 탁구 종목 참가 인원을 확정된 후 선발 규정과 체육회 지침에 의거해 대한장애인탁구협회 전문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장애인체육회 최종 승인 후 결정됐다.

그 결과, 장수군장애인체육회는 장수군장애인탁구단이 도쿄패럴림픽에 이어 제4회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되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민국 국가대표에 선발됐다고 밝혔다.

최훈식 장수군장애인체육회장(장수군수)은 "장수군장애인체육회의 그동안의 노력이 2023년에도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다"면서 "참가하는 각종 대회에 부상 없이 임해줘 좋은 경기를 보여주기를 바라고 장수군 홍보와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기여해주길 바란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편 장애인탁구단은 2022년 태국 오픈 국제대회 남자 단식 금메달, 2022년 슬로베니아 오픈대회 여자복식 동메달, 2021년 2020 도쿄패럴림픽 탁구 남자단체전 은메달 등 우수한 성적으로 장수군 장애인체육회의 위상을 높이고 장수군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빙상 김보름-노선영

10일 항소심 재판 재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왕다 주행' 논란을 빚었던 김보름씨와 노선영씨의 손해배상 소송이 10일 재개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는 오는 10일 오후 김씨가 노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김씨 측 이의 제기로 강제조정기 무산돼 재판부가 다시 정식 재판을 열게 된 것이다. /뉴시스

올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현역 후보자 추천 접수

태권도진흥재단, 5월 31일까지... 공헌·현역 부문 나눠 선정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승환, 이하 재단)은 태권도 진흥·발전과 세계화에 기여한 태권도인을 기리는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2023년도 현역 후보자 추천을 5월 31일까지 받는다.

작고한 태권도인 중 탁월한 공로로 전 세계 태권도인의 귀감이 되고 존경받는 인사에 대해 '태권도

공헌'과 '특별 현역' 부문으로 나눠 선정할 계획이다.

추천 조건으로 '태권도 공헌' 부문은 세계태권도연맹 회원국에서 30년 이상 태권도 보급·교육·진흥 및 기술 개발과 세계화에 기여한 인사를, '특별 현역' 부문은 개인 및 기업인 행정인, 연구자 등 세부 분야별 업적 기준을 충족한

인사로 추천 가능하다.

추천 인사에 대해서는 스포츠·외교 관련 공공기관 및 주한 외교공관을 포함한 재외 공관의 장, 국가원장·세계태권도연맹총재·5개 대륙 태권도연맹회장·대한태권도협회장·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장·국가별 태권도협회장, 체육·태권도 관련 언론인 협회 등의 추천서를 제출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